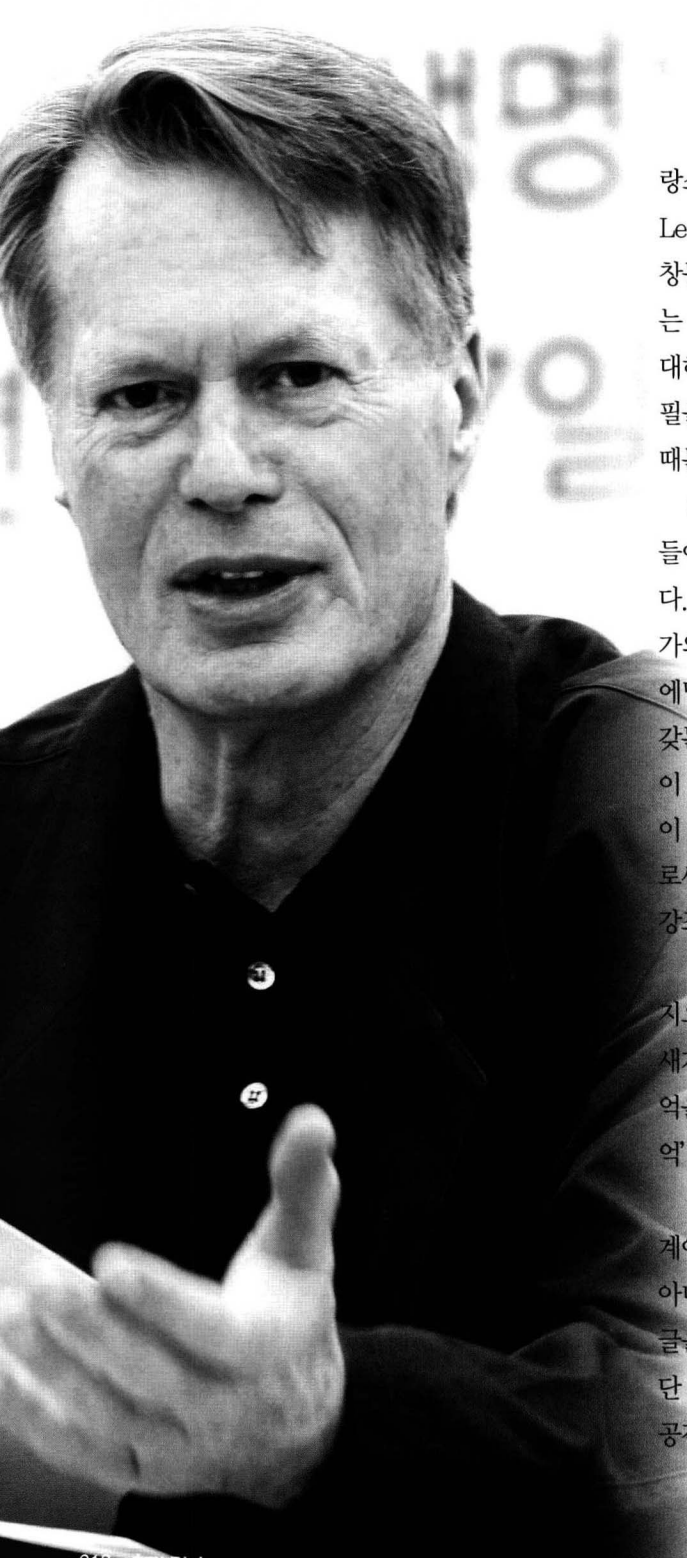


3월 방한한 프랑스 문단의 거장 르 클레지오

## 작가는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재단 · KYO



《황금 물고기》《조서》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문단의 거장 장 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ezio)가 지난 3월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 동안 르 클레지오는 이창동, 박찬욱 등 영화인들을 만났고 지난 3월 7일에는 ‘기억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가졌다. 방한 기간 중 영화인들을 만난 이유에 대해 르 클레지오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칸영화제 측이 영화 관련 책 집필을 의뢰했고,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국 영화를 책의 소재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월 7일 광화문 교보생명에서 열린 공개 강연회에는 100여 명의 독자들이 참석해 르 클레지오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해 보였다. 강연에서 르 클레지오는 “기억으로 글을 쓰는가, 상상으로 글을 쓰는가의 문제는 문학의 정수를 건드리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에밀리 브론테와 프랑소와즈 사강 등의 작가들을 통해 문학에서 ‘상상’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제임스 조이스 등의 작가를 통해 문학에서 ‘기억’이 갖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르 클레지오는 결론적으로 “기억과 상상이 문학은 물론 삶을 변형시키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문학적 기원으로서의 ‘기억’과 ‘상상’의 차원이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등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하고 있는 르 클레지오는 영월을 혼자서 여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월의 안개와 냇새가 어린 시절 전쟁을 피해 지냈던 산골 마을의 정취와 비슷해 행복한 추억을 떠올렸던 기억이 새롭다”면서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이 경험, 즉 ‘기억’에서 나오는 것임을 은근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공개 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소설가 최수철 씨가 “관념적 작품세계에서 쉬운 글쓰기로 옮겨갔다”고 평하자 르 클레지오는 “작가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기억에 들어가 글을 쓰고 상상을 통해 해석과 재구성해야 존재”라고 응답했다. 그는 “집단 혹은 다른 사람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만큼 읽는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